

속리-찾아가는 국립공원교실

1. 기획목적

- 우리의 미래 세대인 아동들이 국립공원에서 환경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자연이 가지는 신비감과 더불어 생태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다양한 탐방서비스 제공으로 국립공원을 홍보
- 찾아가는 국립공원으로 아이들과 함께 천연염색체험을 통한 자연속의 삶의 지혜를 이해

2. 프로그램 개요

- 형식 : 인근 유치원 및 초등학교 방문을 통한 국립공원 홍보
- 운영주체: 직원 및 자연환경안내원
- 일시: 7월 ~ 11월
- 장소 : 속리산 국립공원인근 지역
- 운영횟수: 5회(156명)
- 참가비 : 없음
- 참가대상: 속리산 국립공원 인근지역 아동
- 운영인원: 직원1명 외 자연환경안내원 5명

3. 운영방법

- 프로그램 진행시 참여자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유도
- 염색은 체험 위주로 진행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도우미 역할요원 배치
- 모둠별 운영(6인 1조)을 통한 염색체험 운영

4. 운영현황

- 2005년 7월부터 현재 5회 운영 (인원: 156명)

5. 운영평가

- 별도의 참가비가 없고
- 프로그램 종료 후 설문지 작성을 통한 프로그램의 개발필요
- 학년별 차별화 된 프로그램이 필요
- 찾아가는 국립공원 교실을 통한 인근 지역 학생들 국립공원을 이해하고 자연을 배우는 시간이 된 것 같다

6. 프로그램 해설시나리오

1)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속리산국립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000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속리산국립공원에 근무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원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이런 기회가 아니고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찾아가는 국립공원교실을 운영하는 목적은 공원안에 살면서도 국립공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또 국립공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써 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런 국립공원 지역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국립공원에 관한 간단한 지식을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지리산입니다. 여러분들 지리산 알고 있지요? 그리고 속리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설악산과 같이 1970. 3.24 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20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중 한라산과 경주국립공원을 제외한 18개 국립공원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주로 하는 일은 자원관리, 국립공원의 자연·문화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훼손지 복원,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제한 등을 통해 자연생태계 가 온전히 보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나비 생태여행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나비생태여행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나비는 알-유충-번데기-나비의 과정을 거치는 완전변태곤충입니다. 완전변태곤충으로는 모기, 장수풍뎅이, 시슴벌레 등이 있습니다.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성충이 되는 것은 불완전변태라고 합니다. 불완전변태곤충으로는 매미, 메뚜기, 잠자리 등이 있습니다.

이 나비들은 속리산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는 나비입니다.

자 이제 나비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나비를 보면서 자기가 제일 맘에 드는 나비를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이 끝나고 여러분께 물어 볼게요.

■ 나비 사진



3) 천연염색하기

천연염색이란..

천연염색이란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가지고 염료를 추출해 천에 물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천연염료엔 식물의 잎이나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한 식물성염료와 붉나무의 벌레집인 오배자와 조개등의 동물성 염료, 황토와 같은 광물성염료가 있습니다. 또한 색상이 잘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물질, 즉 어떤 매염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 가지색(단색성염료), 또는 여러 가지(다색성염료) 색을 내기도 합니다. 그 중 오늘은 노란색만을 내는 치자라는 것을 가지고 염색을 하겠습니다.

치자는 꼭두서니과의 작은 키 나무입니다. 치자나무의 열매를 끓인 염료를 가지고 염색을 할 텐데, 약명이 바로 ‘치자’라고 합니다.

한 가지 색만을 내는 대표적인 단색성 염료로 독성이 없어 밥이나 떡과 같은 음식에 노란색으로 예쁘게 물들이기도 하지요. 또한 기록에 보면 방충효과가 있어 사람이 죽으면 입는 수의를 염색하기도 했다는군요.

이제 시작할 텐데요. 천연염색은 보통 3-9회 정도 염색과 매염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이 적은 관계로 동시에 하기로 하고, 미리 나누워진 천과 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무늬를 내는 방법(홀치기염)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준비단계 : 실을 이용하여 천을 자유롭게 묶어준다)
(홀치기염 :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다양한 무늬를 볼수 있다)
2. 준비된 염액에 천을 넣고 20-30분 정도 염색한다.
3. 적당시간 경과 후 천을 꺼내 깨끗이 헹궈준다.
4. 그늘에 널어 말린다.
5. 작품을 감상하고 느낌을 이야기해본다.

4)마무리

모두들 즐거웠나요? 이렇게 자연은 우리에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와 물이에도 많은 것을 줍니다. 그만큼 자연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한지 않은 것이 없이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